



불안정 고용과, 직업성 사고와 손상에 대한 체계적 고찰

김양우 한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산업보건 분야에서 사회심리학적 요인(Psychosocial factor)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불안정 고용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유해인자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산업보건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에게 비정규직과 직업성 사고와 손상의 연관성은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만큼이나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지난해 발생한 김용균 씨의 비극을 통해 대중에게도 경각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이러한 비정규직의 위험성은 한국에 국한된 문제이거나 후진국형 안전불감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Koranyi 등 스웨덴의 직업환경의학 연구진이 북미, 유럽, 호주,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종합하여 2018년 하반기에 발표한 체계적 고찰의 내용을 소개한다.¹⁾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고용의 형태가 다양화된 것은 서구 사회에서 먼저 발생한 현상이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금융 위주의 경제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신자유주의 정치 체제는 “세계화”로 요약할 수 있다. 90년대 말과 2000년대 말에 발생한 금융 위기에 의해 세계화의 어두운 면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불안정한 고용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불안정 고용(Precarious employment)”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통해 파생된 새로운 개념이다. 현재 유럽 노동자의 1/3 이상이 불안정 고용에 놓여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용역 등의 용어도 불안정 고용에 해당한다.

산업보건 분야에서 사회심리학적 요인(Psychosocial factor)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불안정 고용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유해인자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안정 고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아직까지 없으며,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집합적 개념으로 이해한다. 연구에는 경제학자 Standing이 제시한 기준인 고용 불안정성 척도(Employment Precariousness Scale) 등을 사용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불안정 직업을 “고용기간, 다수의 고용주 또는 위장 혹은 모호한 고용 관계, 고용과 관계된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 부족, 저임금, 노조 가입과 집단 교섭권에 대한 상당 수준의 법적 또는 실질적 방해 등에 의한 불안정성”이 있는 직업

으로 정의한다. <표1>은 불안정 고용에 대한 정의를 비교한 것이다.

<표 1> 불안정 고용의 정의

차원	국제노동기구	Standing 기준	고용 불안정성 척도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된 노출
고용의 기간	시간적 : 고용의 지속성	직업 보장성 : 예) 임의적 해고에 대한 보호	임시직	임시적 고용 한정적 고용 : 하도급 또는 임시 업체에 노동 시간제 급여
사업장	조직적 : 노동 조건에 대한 권한	직업적 역량 보장성 : 기술 및 경력 발전	권한 부족 취약성	노동 시간 권한 고정 노동 일정
소득	경제적 : 충분한 임금	수입 보장성	임금	파트타임 복수 업무 임금
노동권	사회적 : 법적 보호	고용 보장성 : 완전 고용의 목표 사업장 보장성 대표권 보장성	권리 신체 운동	보험 편익 노조화 직업 불안정성 불안정 경력

이 고찰은 불안정 고용과 직업성 손상의 연관성을 다룬 문헌을 수집하고 요약한 것이다. 불안정 고용이 포함하는 서로 다른 차원의 각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논문은 전문가 평가(Peer-review)가 이뤄진 1990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2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4개는 블루칼라 노동자, 2개는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0개 연구가 단면, 4개는 코호트, 3개는 환자-대조군 연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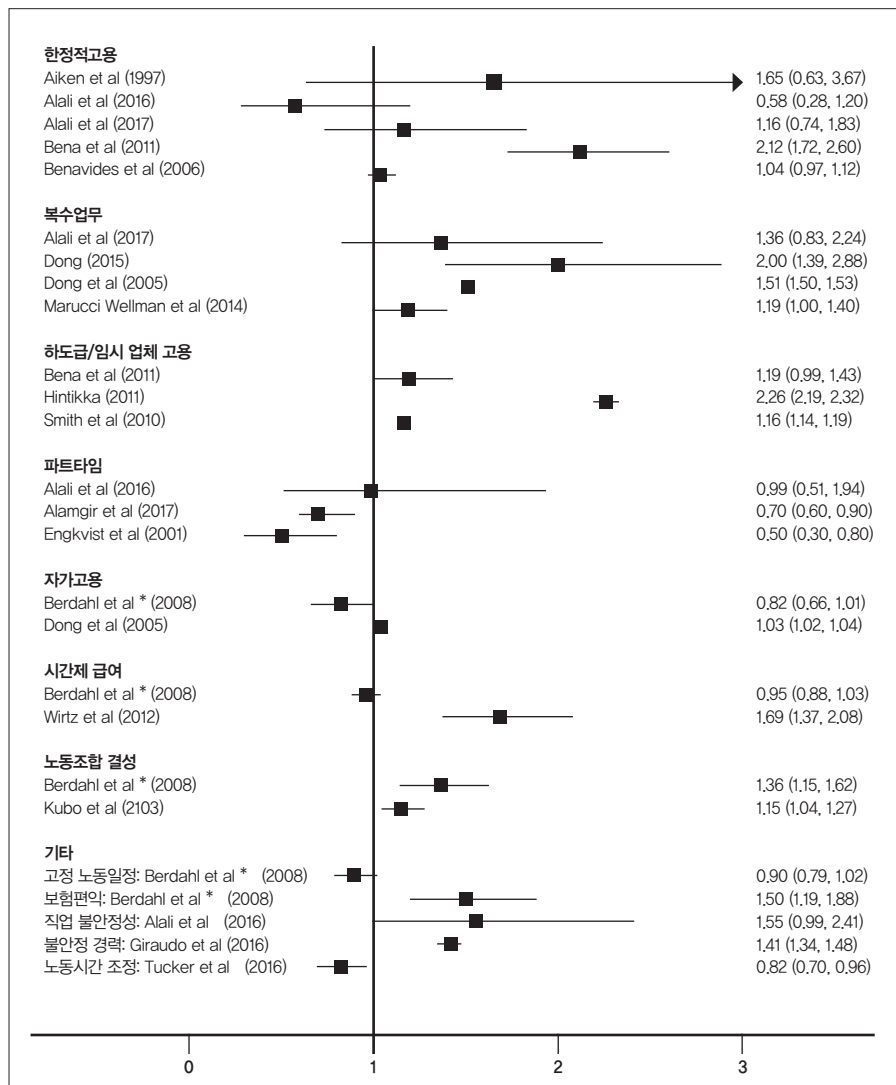
다루어진 노출 유해요인은 가장 흔한 순서로 한정적 고용, 복수 업무, 동일 사업장의 하도급 노동, 파트타임, 자가고용, 시간제 급여, 노동조합 가입 제한, 보험 편익 제한, 유연성이 부족한 고정된 노동일정, 저임금, 직업 불안정성, 노동시간 통제, 불안정 경력 등이었다. 연구결과 대부분은 불안정 고용과 직업성 손상이 양의 연관성을 보였다.

복수 업무를 다룬 4개 연구 전부에서 단일 직업보다 복수 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직업성 손상에 대한 위험이 더 높았고, 동일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경우도 직접 고용된 경우보다 더 높았다. 5개 연구에서 한정적 고용과 손상의 위험의 관계를 다루었는데, 1개 연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확인했고 나머지 4개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파트타임 근무에 대한 4개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치명상과 비치명상을 구분한 연구는 1개였는데 임시직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

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알루미늄 플랜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2개의 연구에서 노동 조합 결성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직업성 손상의 위험이 높았다. 한편, 계약 기간, 복수 업무, 노동시간 조정에 대해서 양-반응 관계가 있었다. 노동시간 조정의 정도가 낮을수록,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직업의 개수가 많을수록 직업성 손상의 위험이 높았다. 성별 층층화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3개였는데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1>은 검토된 연구를 불안정 고용의 차원에 따라 요약한 것이다.

<그림 2> 불안정 고용에 차원에 따른 각 연구의 통계학적 직업성 손상의 위험도 *신뢰구간을 0값으로부터 산출함.





고찰에 대한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각 연구에서 노출과 결과의 정의에 대한 차이가 많아 메타분석을 실시하기는 어려웠지만, 유사한 노출을 묶어서 비교한 결과 일관적으로 직업성 손상의 위험이 더 높았다. 특히, (1)복수 업무를 하는 경우가 단일 업무를 하는 경우보다, (2)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경우가 직접 고용된 경우보다 위험이 높았다.

한정적 고용 또는 임시계약은 불안정 고용을 포함하는 차원의 요인 중에서 가장 흔한 노출이었다. 임시계약을 불안정 고용의 중심에 놓고 보면, 업무와 경제적 불안정성, 업무 경험의 부재, 안전 교육과 사업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직업성 손상의 위험성을 높이는 이유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계약에 대한 연구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진 않았는데, 이는 임시계약이 짧은 연령과 짧은 계약 기간이라는 직업성 손상의 알려진 위험인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Benavides 등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고용 기간을 보정하여 임시계약과 정규계약을 비교한 결과, 보정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임시계약에서 직업성 손상의 위험이 더 높았다. 이는 단순히 계약 기간이 짧기 때문만이 아니라 임시계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 때문에 직업성 손상의 위험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노동시간 역시 중요한 시간적 요소다. 임시계약 노동자가 더 긴 시간 노동을 하며 더 많은 복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업성 손상의 위험이 증가하는 반면, 업무 경험이 많아지면 직업성 손상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총 노동 시간에 대한 보정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결성과 직업성 손상이 예상과 다르게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즉, 노동조합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직업성 손상의 위험이 더 높았던 것이다. 이는 인과관계가 역전되어 직업성 손상이 자주 발생하는 위험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 혹은 노동조합에 의해 노동자의 권리나 산업재해 보상 등이 노동자들에게 더 잘 알려져 회상 바이어스, 선택 바이어스 등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성 손상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고찰 결과, 복수 업무에 대해서는 여성이, 임시계약에 대해서는 남성이 더 위험이 높았다. 이는 직업에 따라 성별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건설현장직은 남자가 훨씬 많고 간호직은 여자가 훨씬 많다.

이번 고찰에서 정부 기관이나 국제 기구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고찰의 한계점이다. 메타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여 출판 바이어스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비슷한 종류의 노출에 대해서도 균일성이 떨어지므로 중간 정도의 출판 바이어스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포함된 연구의 대부분이 단면연구로 시간적 순서에 의한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미 직업성 손상을 당하여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은 통계에 포함할 수 없어 건강노동자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직업성 손상이라는 비교적 잘 정의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결과로 선정했음에도 각 연구 사이에 불균일성을 보이는 이유는 불안정 고용이라는 노출에 대한 정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불안정 고용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이유에 대하여 각 연구마다 중요시하는 사회학적 또는 생리학적 경로가 다르고, 국가별 그리고 산업별 맥락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고용 불안정성 척도처럼 불안정 고용의 다양한 차원에 대하여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향후 연구에 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불안정 고용에 포함할 수 있는 차원이 다양하고 노동의 형태가 급격하게 다변화되고 있지만, 정규 고용이라는 틀은 전일제 완전 고용이라는 의미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일치한다. 즉, 정규 고용에서 어떤 차원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측정하는 것이 불안정 고용을 정의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번 고찰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는 못하였으나 세부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불안정 고용이 직업성 손상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구 사회에서 최근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사회보장제도가 후퇴하면서 불안정 고용이 급격하게 늘었고, 건강영향을 고려하면 실업 상태보다 불안정 고용 상태가 더 좋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

이 고찰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연구를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의 직업성 손상에 관한 통계는 이미 많은 학술논문과 각종 매체의 보도로 충분히 알려져 있기에 별도로 첨부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찰이 한국의 산업보건에 주는 메시지는 다양하고 중요하다.

첫째, 불안정 고용에 대한 개념을 산업계와 대중에 널리 알릴 필요성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비정규직 등의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불안정 고용을 좁은 의미로 한정 짓지 않고 정규 고용의 형태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변칙적인 고용 계약을 포함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보건계에서는 불안정 고용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불안정 고용의 일부 차원은 그 자체가 직업성 손상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업무 자체의 위험성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직업성 손상의 원인을 고용의 형태보다 업무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에 비하여 안전수칙을 충분히 지키고 노동시간이 짧은 유럽경제구역 등의 선진국에서도 같은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체에 고용되거나 임시직으로 계약하는 것 자체가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외주화 자체가 위험”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를 직업성 손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정책적 보안과 사회적 해결책을 병행해야 하며, 이는 불안정 고용을 줄여 나가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은 이 고찰과 같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마련해야 하고 산업보건계가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참고문헌

1. Koranyi I, Jonsson J, Ronnblad T, et al. Precarious employment and occupational accidents and injuries – a systematic review. Scand J Work Environ Health 2018;44:341–350.